

전북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적신표

군산·익산 등 2곳이 유일

전북지역에서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매년 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불교 어린이집은 10년 전 만해도 전북지역에 10여 곳이 운영됐으나 원생의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5 곳만 운영되고 있다.

불교유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 시 단위에서 운영되던 불교유치원은 군산과 남원의 불교유치원이 문을 닫은데 이어 2012년 봄 전주 불교유치원이 원생모집의 어려움으로 휴원했다. 군산의 반야유치원(보문종)과 익산의 관행유치원(진각종) 등 2곳이 전북지역 불교유치원으로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역별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 제1도시인 전주에는 현재 700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불교계는 전북 불교회관 톨미어린이집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다.

군산과 익산의 사찰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도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각 시군단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개신교의 경우는 각 동마다 수백개의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어린이 교육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은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함께 낙후된 시설로 인한 원생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종교의 기관들에 비해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불교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도 집 주변에 불교계 어린이집이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고 있다.

불교계 어린이 집에 자녀를 보낸 적이 있다는 한 학부모는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걸려 아이들이 피곤해져 돌아오곤 한다”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든 먼거리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보니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고 자연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는

낙후된 시설이 원생감소 주원인

투자 기피 악순환으로 문닫아

경영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북불교회관 톨미어린이집 홍희희 원장은 “불교어린이집이 전주 시내에 한 곳 뿐이다 보니 자연히 먼 지역까지 여러 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해야하고 이로인한 경비지출이 상당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몇 년전까지 불교유치원을 운영했었다는 한 불자는 “단 한명의 어린이를 데려오기 위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차량운행 한 적도 있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 운영되고 있지만 불교유치원의 운영이 경제 논리에만 맡겨진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교사찰들의 불교계 유치원 취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아교육기관 불교교사



전북불교회관 톨미어린이집에서 진행 중인 교육 모습. 톨미어린이집도 먼 통학거리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는 “불교계 유치원에 취업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원불교 유치원에 종교를 숨기고 취업했다”고 밝혔다.

각 단위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범회 운영 실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매주 어린이 청소년 범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전주 전북불교회관, 참좋은우리절 2개 사찰에 불과하며 익산 관음사, 정음 성불암 만이 어린이 청소년 범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불교시민연대에서 올해 50명 규모의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을 발족, 활동을 시작해 위안을 주고 있다.

정음 성불암(주지 상운)과 같이 어린이 전용법당을 마련하고 전문지도교사의 학비까지 지원하면서 어린이범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사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범회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수 전전북포교사단장은 “단지 시끄럽고 사찰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어린이 청소년 범회를 폐쇄하면 다시 범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 기피는 청년불자의 감소와 사찰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단장은 “고사 위기에 처한 불교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범종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자연친화적인 사찰환경을 적극 활용한 친환경적인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에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 평화 NGO 거점 될 것”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1080회원 확보 등 다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2월 24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에서 ‘2012 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상임대표 정선 스님, 장회교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주성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 등 사부대중 15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봉사활동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2012년 사업 및 수지결산, 정관개정, 2013년 사업 및 예산안을 인준했다.

부설기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의 신임대표에는 최근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임명됐다. 법일 스님은 “호남불교

가 적박함에도 불구하고 미려하나마 본회가 대사회적 실천과 회화사업을 펼쳐오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생명평화의 가치를 잘 살려 불교NGO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13년 희망선언’에서 △1080회원 확보 및 나무숲 회원 증대 △회의체계의 민주적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실천 △창립5주년 기념범회 마련 △환경보살 실천계몽 제정 △빈그릇 운동 캠페인 및 빈그릇 운동 실천도량 지정 △어린이 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활동 강화 △대사회적 실천사업 강화 △광주불교방송 환경캠페인 지속 전개 등을 선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종교평화 합창제 개최

4대종교 합창단, 지역발전 힘 모으는 찬불가 불러

군산지역 4대 종단이 종교간 화합을 위한 종교평화합창제를 연다.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종교단체 합창단들은 11월 24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종교평화합창제를 개최한다.

불교의 그린비 합창단과 원불교의 군산 지구 원음합창단, 천주교의 평화합창단, 성광교회 찬양대가 참가하는 이번 종교평화합창제는 종교계가 힘을 모아 나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올해 2회를 맞는 군산 종교평화합창제



11월 24일 군산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종교평화합창제

는 각 종단이 순번제로 개최하며 올해는 불교계에서 주관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지역 합창단 정기공연 열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카일라스합창단, 부루나 합창단 등 참여

“행복한 삶에 찬불가도 동참합니다.” 지난 14일 광주 빛고을문화관에는 아름다운 찬불가 소리가 강당을 가득 찼다. 찬불가 합창 발표회에서 단원들의 신심어린 노래가사는 대중들을 감동시켰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 부설 카일라스 합창단과 남자 합창단인 부루나 합창단은 11월 14일 정기발표회 ‘연꽃 피어 오르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50여명의 단원들은 ‘목어소리’, ‘세상의 빛이 되어’, ‘천개의 눈’을 열창하며, 찬불가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정수만을 모아 노랫말을 만들고, 여기에 아름다운 선율을 실어 노래

를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창단은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보살”이라고 덕담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첫 무대는 부루나 합창단이 열었다. ‘산사로 가자’, ‘꽃길’,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로 이어진 발표회는 카일라스 합창단의 ‘구름에 물든 절’, ‘나의 톨미니’, ‘산사초파일’로 담가로 진행됐다. 여기에 범능 스님 축가, 다르마 중창단의 합창, 오목대의 대금연주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 지용현 회장, 하태욱 광주부 부경찰서 서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해 발표회를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근로자 위한 한국어 교육 호응

네팔 및 캄보디아 출신 많아... 12월 23일 승년의 밤

“한국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서 즐거워요.”

올해 5년차 한국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는 비스타(네팔)를 포함한 광주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를 찾는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적응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네팔과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아 네팔과 캄보디아 반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장에서 만난 비스타(네팔)씨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주성 센터장은 “비록 한국어 일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지만, 이들이 본국에 돌아 가면 또 다른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매주 토요일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신나는 미술나라’ 프로그램이 진행하며, 오는 12월 23일 외국인근로자 초청 승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제 봉행

나한신앙 축제 성격, 연상재 및 법요식도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전’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16일 오백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에서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주지 연광 스님을 비롯해 스님 20여명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대제가 열린 나한전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속한다. 한국전쟁 때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오백나한전은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나한전에는 석가모

니불과 아난, 가섭존자, 10대 제자, 16성중, 500아라한이 모셔져 있다.

행사는 증심사 자랑회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통불교연상회 회원스님들의 연상재 기도와 법요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어려운 이웃이 힘들때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것이 회향의 의미”라며 “오백나한대제가 향후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나한신앙은 국난을 극복하는 염원을 담고 있고, 발원자의 소원을 성취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의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듯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여성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면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 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안좋고 불경기에 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 8cm 세로 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색명,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안락소, 문방구, 기원, 복관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한방사우사,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